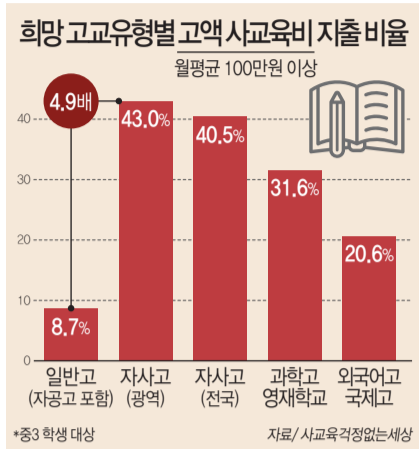


자사고 희망 중3 사교육비 일반고 준비생보다 '4.9배'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 분석
광역 자사고 43%... 일반고 8.7%
자사고 1학년 수면시간 평균 하회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대상 시도교육청의 재지정평가가 9일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13개 자사고 평가결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자사고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2년전 조사결과가 주목을 끈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들의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 비율이 일반고를 지망하는 학생의 4.9배에 달하고, 밤 10시 이후나 휴일 사교육 참여율도 자사고 지망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오영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3과 고1 학생 1만 8263명을 대상으로 희망·재학 고교유형별 사교육비와 사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 중3의 월평균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유형별로 ▲광역단위 자사고 희망자가 43.0%로 가장 높았고, ▲전국단위 자사고가 40.5%인 반면, ▲일반고는 8.7%로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대비

최대 4.9배 많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년 전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자사고들의 지난 5년에 관한 재지정평가 시점과 일치하는 의미있는 자료라 판단돼 (자료)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도 자사고 학생들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일반고 학생보다 높았다. 고1 대상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을 받는다는 비율은 ▲일반고는 13.7%인데 비해 ▲광역단위 자사고 35.8% ▲전국단위 자사고 22.9%로 일반고와 약 2.6배 차이를 보였다.

또 ▲주당 14시간 이상 사교육 참여율 ▲일요일 사교육 참여율 ▲10시 이후 사교육 마치는 시간 비율에서도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 희망자가 영재학교/과학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3 10명 중 약 3명은 고입을 위한 사교육을 초등학교(또는 이전)부터 시작했고, 중3 학생의 54.6%는 '고입 경쟁으로 인한 진학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고,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 진학 희망자의 경우 67.6%가 진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 비율'도 자사고 1학년 학생이 33.2%로, 전체 유형 고1 학생의 26.5%에 비해 많아 자사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입경쟁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면 자사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 중3 학생들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자사고 등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을 하고 있었고, 희망 고교유형별 사교육비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자사고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서열화된 지금의 고교체제는 과도한 사교육 고통은 물론 사교육 비용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유발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미 제도적으로 고교서열화 속에서 고교SKY에 진입해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입 단계의 모든 학생·학부모의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면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세종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은 '제6회 SW·인공지능 해커톤'을 지난 6월 25일~26일까지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진행했다. /세종대학교

세종대 SW중심대학사업단 '6회 SW·AI 해커톤' 성료

세종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은 '제6회 SW·인공지능 해커톤'을 지난 6월 25일~26일까지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진행했다.

SW·인공지능 해커톤은 학생들의 SW분야 실무 프로그래밍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기량을 평가하는 대회로, 교내 행정시스템 SW분야, 대양AI센터 인공지능 분야, 대양AI센터 콜라보랩 인공지능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예선을 거쳐 본선 15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대회의 수상은 전체 분야에서 우수한 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상은 '4B'팀과 '10000 SAi 10000 10000 Sai'팀이 차지했다. '4B'팀은 교내 행정시스템 SW 분야의 '모바일 학술정보원'을 개발했고 '10000 SAi 10000 10000 Sai'팀은 대양AI센터 콜라보랩 인공지능 분야의 '콜라보랩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용수 기자

대학도서관서 우수학술도서 만난다

교육부 286종 선정... 13만권 보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은 2019년 우수학술도서 286종을 선정해 전국 대학 도서관에 13만여권을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서 선정을 위한 심사는 학술원 회원과 학문 분야별 전문가 10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다단계 평가로 진행됐고, 저술 내용의 전문성, 독창성, 학문적 기여도 등이 중점 평가됐다.

올해 우수학술도서 선정 사업에는 374개 출판사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행한 3459종의 국내 초판 학술 도서가 접수됐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이번 선정된 우수학술도서에 대한 대학의 수요를 19일까지 조사한 후, 총 33억 원 상당의 도서를 올해 하반기 국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분야별 선정 도서는 사회과학이 95종으로 가장 많고, 자연과학 86종, 인문학 65종, 한국학 40종 순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매년 300여개 대학도서관에 10만여 권의 우수학술 도서가 보급됐다. /한용수 기자

中企 절반 "하반기 신입 채용할 것"

잡코리아 중소기업 448곳 설문
61%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선발" 영업) 제조) 연구) 인사) IT) 회계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규모를 정하지 않은 기업이 더 많아 예년 수준의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잡코리아는 최근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44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의

52.9%는 '하반기 신입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채용계획이 없다' (23.9%)와 '미정' (23.2%)이라는 응답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반기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힌 기업 중 채용규모를 확정한 기업은 43.9%였다.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채용규모는 예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예년과 비교해 어떤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은 결과 60.8%의 기업이 '비슷하다'고 답했다. '예년보다 적다'는 26.2%로 '많다' (13.0%)는 응답 비율보

다 두 배 높았다.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직무는 ▲영업/영업관리가 응답률 38.4%로 가장 많았다. ▲제조/생산(25.3%) ▲연구/개발(21.9%)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기획/인사(16.5%) ▲IT/정보통신(16.0%) ▲회계/재무(14.8%) ▲고객상담(14.3%) 등이었다.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한 기업의 64.1%는 ▲4년제 대졸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혔고, ▲2년제 대졸자(48.5%) ▲고졸자(35.0%) ▲대학원 이상(6.8%)으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

금성출판사 유·초·중학생 대상 한자자격시험 실시

금성출판사는 전국 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2019 하반기 한자자격시험' 참가자를 22일까지 푸르넷 공부방 전국 지점에서 방문·전화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한자자격시험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평가를 진행, 학습습관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유아와 초·중·고 학생들의 어휘력과 학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시험은 한자에 대한 이해, 실생활에서의 한자 활용 능력, 어휘력, 교과서 한자 어인지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한용수 기자

직장인 절반, 사무실서 '냉방병' 걸린다

평균 23.4도... 적정온도보다 낮아

올해 여름철 사무실 온도는 평균 23.4도로 나타나 적정 온도보다 3~5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직장인 절반 가량은 냉방병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이 직장인 1860명을 대상으로 '사무실 냉방 때문에 냉방병에 걸린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9%가 '냉방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59.5%)이 남성(39.8%)보다 냉방병에 걸린 경험이 19.7%포인트 많았다. 냉방병 증상으로는 '콧물/기침 등 감

기' (56.5%, 복수응답)가 가장 흔했다. 이어 '두통' (42.9%), '오한/몸살/발열' (22.8%), '얼굴/손발에 열기나 냉기 오름' (21.1%), '소화불량' (10.3%), '근육/관절통' (6.4%)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절반(50.2%)은 여름철에 1~2회 가량 냉방병에 걸린다고 답했다. 14.7%는 여름철 3~4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9%는 '냉방기가 가동 기간 내내 계속 걸려왔다'고 응답했다.

냉방병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수준'의 좋지 않은 영향 (69.6%)을 꼽은 비율이 가장 많았다. /한용수 기자

인하공전,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대회 대상

인하공업전문대학은 관광경영과 학술동아리가 지난 6월28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호텔관광대학에서 개최된 '제52차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발표대회' 대학생 제안서 발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 대학생 제안서 발표부문에는 전국 32개 대학이 참가해 예선을 통과한 9개 대학 팀이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고, 인하공전 관광경영과 학술동아리 '투어 인하' (양정화, 주선화, 이시은, 박진우)의 '전라-좋아: 장애인을 위한 관광서비스 콘텐츠 개발' 주제 발표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한용수 기자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경영과 학술동아리가 지난 6월28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호텔관광대학에서 개최된 '제52차 한국관광레저학회 학술발표대회' 대학생 제안서 발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하공전

서울예대 '동량청소년예술제·예술캠프' 참가자 모집

서울예술대학교는 전국 고교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2019 서울예대 동량 청소년예술제 및 예술캠프' 참가자를 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량청소년종합예술제는 1962년부터 시작해 지난 57년간 예비예술가를 발굴하고 문화예술계 주역들을 배출해 왔다. 정동환, 김상중, 조성하 등의 연극자와 영화감독 장진 등이 이 예술제 출신이다.

경연은 연극, 문예, 뮤지컬, 광고(이상 7월18일까지 참가 접수), 무용, 영상, 국악, 사진(이상 8월1일까지 참가 접수) 등 총 8개 부문에서 펼쳐진다.

동량청소년예술제 개인상 입상자는 서울예대 입학 전형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각 부문별 동량대상 수상자에게는 서울예대 입학 시 한 학기 수업료가 면제 혜택을 받는다. 시상식은 8월24일 서울예술대에서 열린다. /한용수 기자